

노동시장 동향

경제일반

◆ 생산·소비·투자 전부문 증가

- 2006년 7월 산업생산은 자동차업계 과업과 장마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3.9% 감소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반도체, 기타 운송장비 등의 호조로 4.4%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등의 부진으로 전월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됨, 소비는 0.5% 감소, 투자는 4.2% 증가하였음.
 - 7월 제조업 생산은 디스플레이패널, 반도체메모리, 선박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분규, 장마 영향과 작년 7월 증가율(7.0%)이 높았던데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음(표 1 참조).
 - 서비스업 생산은 의료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세가 둔화되어 6월(4.3%)보다 낮은 전년동월대비 2.1% 증가하였음. 오락·문화·운동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서 부진했음(그림 2 참조).
 - 소비재 판매는 승용차 판매 감소 등으로 내구재가 감소하였고, 준내구재, 비내구재에서도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0.5% 감소하였음.
-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1로 전월보다 0.7포인트 하락하였고, 향후의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전월보다 0.5%포인트 하락하였음(그림 3 참조).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4					2005						2006			
	1/4	2/4	3/4	4/4	연간	1/4	2/4	3/4	7월	4/4	연간	1/4	2/4p	7월p	
생산	광공업 생산	11.4	12.8	10.9	6.4	10.2	3.5	3.5	7.1	10.3	10.3	6.3	12.0	10.9	4.4 (-3.9)
	제조업 생산	11.9	13.1	11.0	6.6	10.5	3.3	3.4	7.4	10.4	10.4	6.2	12.6	11.4	4.7 (-3.9)
	출 하	10.2	11.0	10.0	5.7	9.1	3.6	3.5	6.4	8.6	8.6	5.6	9.1	8.4	1.3 (-4.0)
	수 출	22.1	23.6	20.3	15.3	20.1	11.5	7.3	9.5	12.9	12.9	10.3	12.4	13.7	11.9 (-3.1)
	내 수	3.8	3.9	3.9	-0.3	2.6	-1.4	1.0	4.2	5.5	5.5	2.3	6.7	4.7	-6.3(-11.3)
	서비스업 생산	2.1	1.0	-0.5	-0.2	0.6	0.8	2.4	5.4	4.6	5.8	3.6	6.1	5.3	2.1 (-1.4)
소비 소비재 판매	-1.3	-0.3	-1.2	-0.5	-0.8	1.2	3.4	4.4	5.1	6.8	3.9	5.0	5.4	-0.5 (-5.0)	
투자 설비투자	-1.3	3.4	3.4	0.2	1.4	3.9	1.4	1.1	4.3	7.0	3.4	4.3	4.2	4.2 (-5.0)	

주 : p는 잠정치임. ()안은 전기(월)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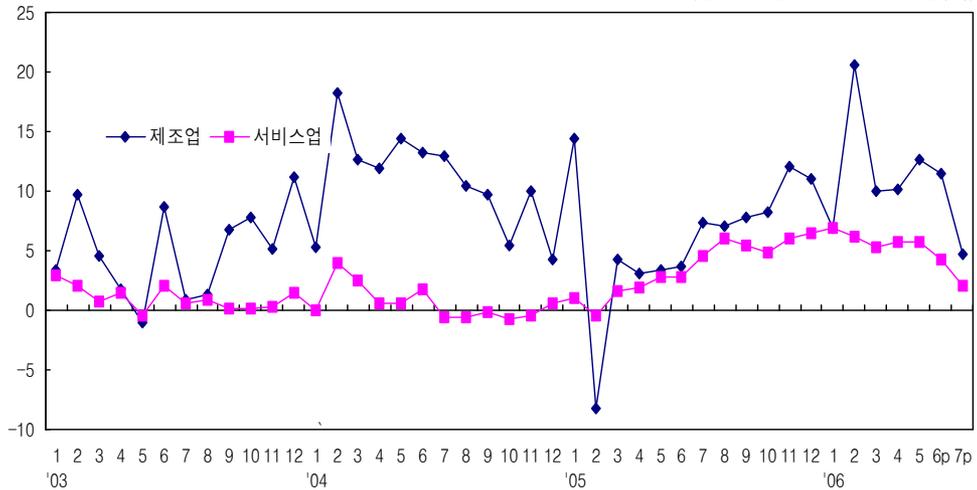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 2000. 1. 7.)상의 20개 대분류 중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11개(도소매업(G), 숙박·음식점업(H), 운수업(I), 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사업서비스업(M), 교육서비스업(O), 보건복지사업(P),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Q),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 산업을 포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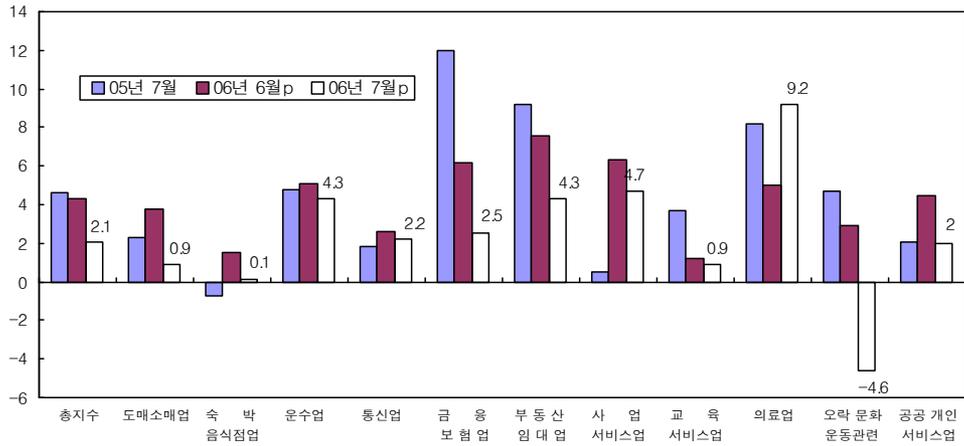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 통계청, 『2006년 7월 산업활동동향』, 2006. 8.

——, 『2006년 7월 서비스업활동동향』, 2006.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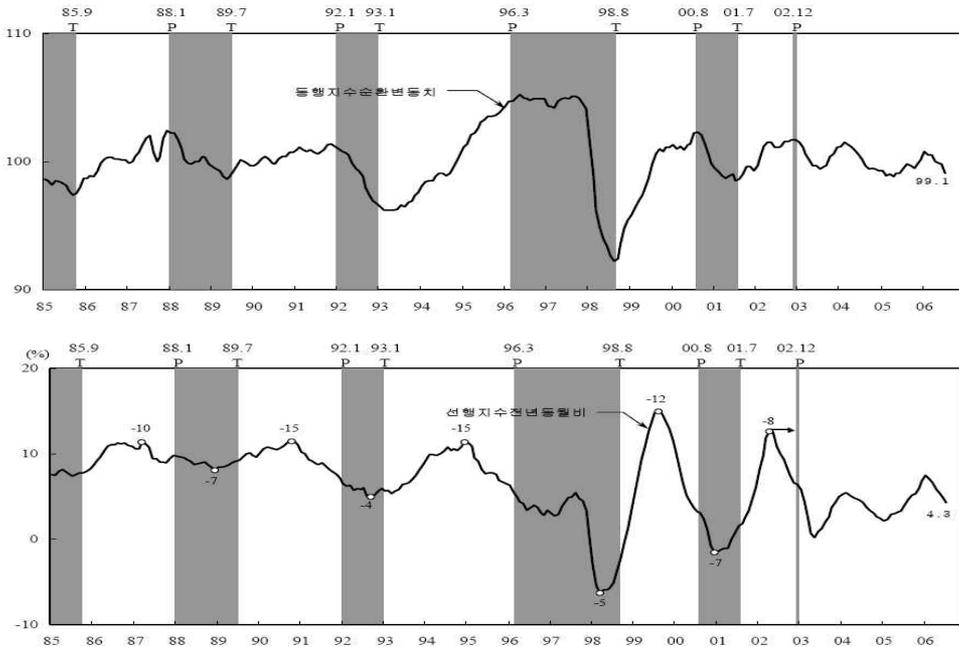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지수 동향



주: p는 정점(Peak), T는 저점(Trough)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2006년 7월 산업활동동향』, 2006. 8.

고용 동향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증가

- 2006년 8월 경제활동인구는 23,97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2천명(1.2%) 증가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011천명으로 130천명(0.9%)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9,961천명으로 153천명(1.6%) 증가함.
- 2006년 8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1.7%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상승
 - 2005년 8월 이후 감소하던 경제활동참가율이 11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
 - 성별로 보면 남성(74.1%)이 0.2%포인트 하락한 반면, 여성(50.0%)은 0.3%포인트 상승
 -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 1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세는 지속
- 2006년 8월 중 고용률은 59.6%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상승
 - 남성의 고용률은 71.4%로 전년동월과 같은 반면, 여성의 고용률은 48.5%로 0.3%포인트 증가
 - 여성의 고용률 증가세가 지속되며 남성의 고용률은 회복세를 보임(그림 4 참조).

〈표 2〉 최근의 고용동향

(단위: 천명, %)

	2005					2006			
	1/4분기	2/4분기	3/4분기	3/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4/4분기			7월	8월
경제활동인구	23,221 (0.8)	24,004 (1.8)	23,893 (1.8)	23,689 (2.0)	23,853 (1.2)	23,492 (1.2)	24,225 (0.9)	24,270 (0.8)	23,972 (1.2)
참 가 율	61.1	62.7	62.2	61.6	62.0	60.9	62.5	62.5	61.7
취 업 자	22,247 (0.6)	23,126 (1.7)	23,026 (1.7)	22,847 (2.1)	23,025 (1.3)	22,577 (1.5)	23,409 (1.2)	23,447 (1.1)	23,164 (1.4)
고 용 률	58.5	60.4	59.9	59.5	59.8	58.5	60.4	60.4	59.6
실 업 자	975	878	867	843	827	915	816	823	807
실 업 률	4.2	3.7	3.6	3.6	3.5	3.9	3.4	3.4	3.4
비경제활동인구	14,789 (1.7)	14,271 (1.2)	14,533 (1.7)	14,739 (1.4)	14,634 (2.5)	15,101 (2.1)	14,505 (1.6)	14,544 (1.5)	14,864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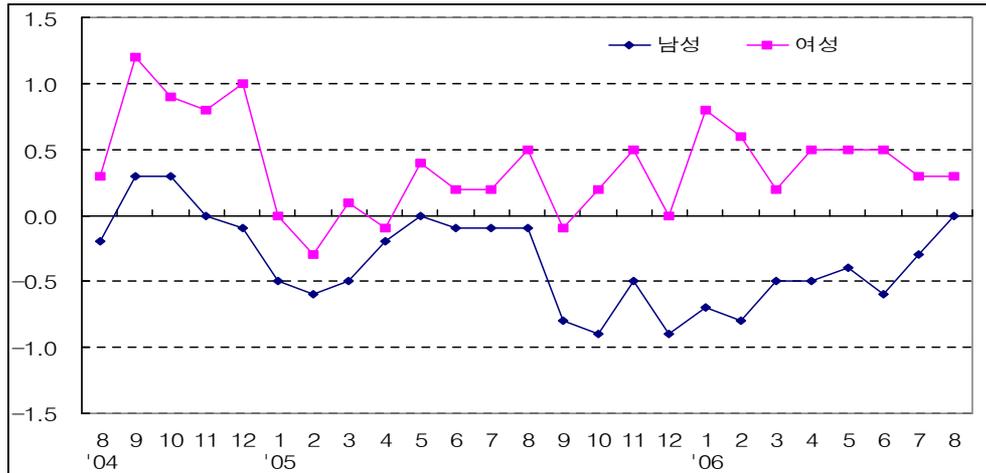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공식 실업통계의 기준이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전환.

자료: 통계청, 『2006년 8월 고용동향』, 2006. 9.

[그림 4] 성별 고용률 증가

(단위: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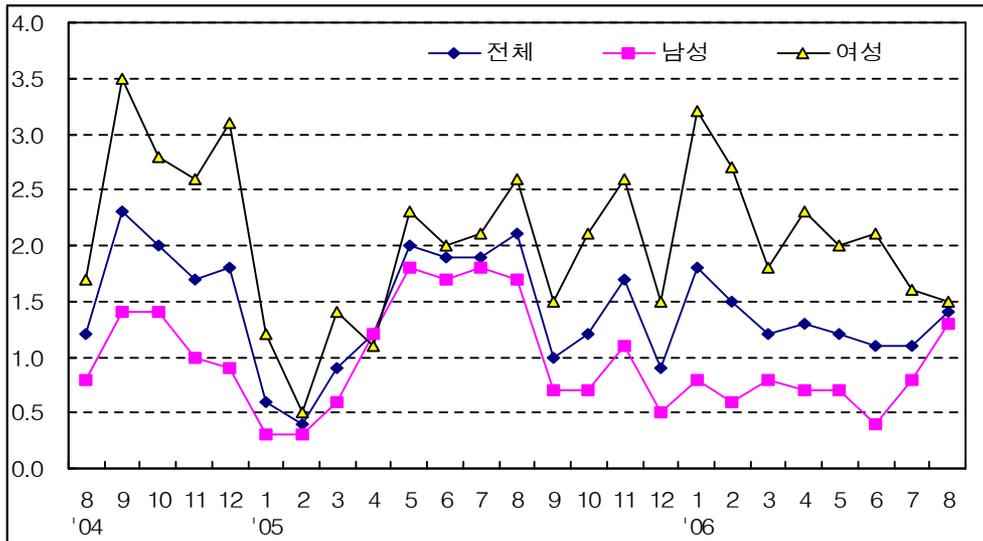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 2006년 8월 중 취업자는 23,16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8천명(1.4%)이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3,50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4천명(1.3%), 여성 취업자는 9,66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4천명(1.5%)이 증가하여 남성보다 여성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짐(그림 5 참조).
 - 연령계층별로 보면 30대 이상에서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특히 50대(224천명, 6.2%)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짐.
 - 2006년 8월 중 실업자는 80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천명(-4.2%)이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4%로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 감소함.
 - 남성 실업자는 50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천명(-8.0%) 감소한 반면, 여성 실업자는 30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명(3.1%)이 증가함.
 - 실업률은 남성이 3.6%로 전년동월대비 0.4% 포인트 감소한 반면, 여성은 3.0%로 전년동월과 같음.
 - 2006년 8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4,86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5천명(0.8%)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는 12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천명 감소함.
 - 구직단념자가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임(-17천명(7월), -26천명(8월)).
- ※ 구직단념자 추이 : 148천명(2005. 8) → 115천명(2006. 4) → 122천명(2006. 6) → 124천명(2006. 7) → 122천명(2006. 8)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포인트)



자료: 통계청 KOSIS.

- 2006년 8월 고용사정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
 - 여성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증가, 남성취업자의 증가, 실업률의 감소 등으로 고용사정은 개선됨.
-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 제조업 취업자 감소
- 2006년 8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38천명, 4.9%), 전기·운수·통신·금융업(82천명, 3.6%), 건설업(17천명, 0.9%) 등에서 증가한 반면, 제조업(-53천명, -1.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51천명, -0.9%), 농림어업(-16천명, -0.8%), 등에서는 감소함.
 - 산업별·성별 취업자 증감률을 보면, 제조업은 남·여 모두 감소하였으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남성에서는 42천명이 증가한 반면, 여성은 92천명이 감소함.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 취업자가 많이 증가 (남성: 86천명(2.4%), 여성: 252천명(7.6%))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가 지속되나, 고용비중이 큰 제조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감소세는 지속(그림 6 참조).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명, %)

	2005					2006			
	1/4분기	2/4분기	3/4분기	3/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4/4분기			7월	8월
전 산업	22,247 (0.6)	23,126 (1.7)	23,026 (1.7)	22,847 (2.1)	23,025 (1.3)	22,577 (1.5)	23,409 (1.2)	23,447 (1.1)	23,164 (1.4)
농림어업	1,525 (-5.2)	2,018 (2.5)	1,965 (1.7)	1,951 (0.9)	1,754 (-2.0)	1,492 (-2.2)	1,952 (-3.2)	1,947 (-2.9)	1,935 (-0.8)
제조업	4,260 (-0.4)	4,257 (-1.2)	4,200 (-1.8)	4,167 (-1.4)	4,219 (-1.8)	4,189 (-1.7)	4,181 (-1.8)	4,180 (-1.2)	4,114 (-1.3)
건설업	1,692 (-4.0)	1,897 (1.8)	1,836 (2.6)	1,820 (3.9)	1,833 (-1.7)	1,726 (2.0)	1,904 (0.3)	1,851 (-1.0)	1,837 (0.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835 (-1.3)	5,796 (-1.2)	5,783 (-0.6)	5,734 (-0.1)	5,812 (-0.7)	5,800 (-0.6)	5,776 (-0.3)	5,806 (-0.6)	5,683 (-0.9)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 및 기타	6,714 (5.5)	6,907 (5.6)	6,974 (5.4)	6,911 (5.7)	7,098 (5.8)	7,056 (5.1)	7,256 (5.1)	7,306 (4.9)	7,248 (4.9)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202 (1.8)	2,233 (2.3)	2,252 (2.5)	2,249 (3.0)	2,295 (4.1)	2,299 (4.4)	2,323 (4.0)	2,339 (3.9)	2,331 (3.6)

주:()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2) 자세한 업종별 취업자 현황은 부표 참조.

자료: 통계청, 『2006년 8월 고용동향』, 2006. 9.

〔그림 6〕 업종별 취업자 증감률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임금근로자 중 상용·임시근로자 증가, 비임금근로자 모두 감소

- 2006년 8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7,81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5천명(-0.8%) 감소하였으나, 임금근로자는 15,35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3천명(2.6%)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317천명, 4.0%), 임시근로자(139천명, 2.9%)는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73천명, -3.4%)는 감소함(그림 7 참조).
 - 비임금근로자의 감소는 자영업주(-63천명, -1.0%)와 무급가족종사자(-3천명, -0.3%) 모두에서 기인함.
 - 일용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감소 및 상용직 중심으로의 이동은 고용사정이 나아진 것으로 보임.
- 2006년 8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4,10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0천명(6.8%),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8,429천명으로 99천명(0.5%) 증가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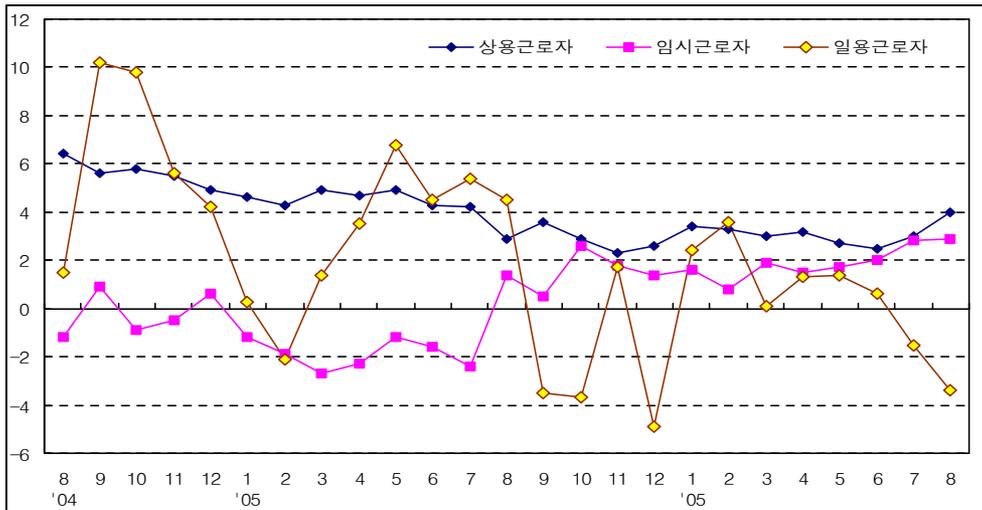
	2005					2006			
	1/4분기	2/4분기	3/4분기	3/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4/4분기			7월	8월
전 체	22,247 (0.6)	23,126 (1.7)	23,026 (1.7)	22,847 (2.1)	23,025 (1.3)	22,577 (1.5)	23,409 (1.2)	23,447 (1.1)	23,164 (1.4)
비임금근로자	7,391 (-1.3)	7,772 (0.1)	7,843 (1.0)	7,879 (1.0)	7,677 (0.6)	7,359 (-0.4)	7,722 (-0.6)	7,727 (-1.1)	7,813 (-0.8)
자영업주	6,022 (0.4)	6,210 (1.2)	6,272 (1.5)	6,302 (1.8)	6,184 (0.9)	6,012 (-0.2)	6,197 (-0.2)	6,190 (-0.9)	6,239 (-1.0)
무급가족 종사자	1,368 (-8.1)	1,562 (-3.9)	1,571 (-1.3)	1,577 (-1.8)	1,493 (-0.8)	1,347 (-1.6)	1,525 (-2.4)	1,537 (-1.8)	1,574 (-0.2)
임금근로자	14,856 (1.7)	15,354 (2.5)	15,183 (2.1)	14,968 (2.6)	15,348 (1.6)	15,219 (2.4)	15,687 (2.2)	15,721 (2.3)	15,351 (2.6)
상용근로자	7,803 (4.9)	7,936 (4.6)	7,945 (3.6)	7,926 (2.9)	7,984 (2.6)	8,054 (3.2)	8,157 (2.8)	8,128 (3.0)	8,243 (4.0)
임시근로자	4,968 (-2.0)	5,112 (-1.7)	5,022 (-0.3)	4,879 (1.4)	5,122 (1.9)	5,038 (1.4)	5,200 (1.7)	5,319 (2.8)	5,018 (2.9)
일용근로자	2,085 (-0.1)	2,306 (4.9)	2,216 (2.0)	2,164 (4.5)	2,242 (-2.3)	2,127 (2.0)	2,330 (1.1)	2,274 (-1.5)	2,090 (-3.4)
36시간 미만	3,004 (16.1)	2,411 (-3.6)	3,138 (16.8)	3,846 (40.7)	2,624 (4.9)	2,832 (-5.7)	2,520 (4.5)	2,986 (13.2)	4,106 (6.8)
36시간 이상	18,783 (-1.8)	20,473 (2.3)	19,476 (-0.4)	18,330 (-4.0)	20,187 (0.9)	19,336 (2.9)	20,669 (1.0)	20,123 (-0.5)	18,429 (0.8)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2006년 8월 고용동향』, 2006. 9.

[그림 7] 임금근로자의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30대 및 50대, 고졸 이하 실업률 감소

- 2006년 8월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30대 및 50대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
 - 연령별 실업률이 30~39세 3.1%(-0.2%포인트), 50~59세 2.0%(-0.6%포인트)로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반면, 15~29세 7.4%(0.0%포인트), 40~49세 2.5%(0.0%포인트), 60세 이상 1.3%(0.2%포인트)로 전년동월대비 같거나 증가함.
 - 교육정도별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중졸 이하 17천명, 고졸 42천명 감소하였으며, 실업률도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 감소한 2.2%, 4.0%를 기록한 반면, 대졸 이상의 실업자는 24천명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0.1% 포인트 증가한 3.4% 기록
- 전체 실업자 807천명을 취업경험별로 살펴보면,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2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명(4.6%) 증가하였고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780천명으로 37천명 (-4.5%) 감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명, %)

	2005					2006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8월
전 체	975(4.2)	878(3.7)	867(3.6)	843(3.6)	827(3.5)	915(3.9)	816(3.4)	823(3.4)	807(3.4)
15~29세	448(9.0)	377(7.8)	368(7.6)	354(7.4)	353(7.5)	396(8.4)	356(7.7)	383(8.0)	337(7.4)
30~39세	224(3.6)	200(3.2)	209(3.3)	206(3.3)	209(3.3)	215(3.4)	177(2.8)	178(2.8)	197(3.1)
40~49세	182(2.9)	165(2.5)	161(2.5)	159(2.5)	152(2.3)	166(2.6)	155(2.3)	151(2.3)	161(2.5)
50~59세	94(2.7)	94(2.5)	98(2.6)	97(2.6)	87(2.3)	101(2.7)	85(2.1)	73(1.8)	80(2.0)
60세 이상	23(1.3)	42(1.6)	32(1.3)	28(1.1)	27(1.1)	37(1.6)	43(1.6)	39(1.5)	33(1.3)
중졸 이하	169(3.1)	161(2.7)	148(2.5)	146(2.5)	136(2.4)	158(2.9)	130(2.2)	141(2.4)	129(2.2)
고졸	528(5.2)	444(4.3)	466(4.5)	446(4.4)	450(4.4)	467(4.6)	404(4.0)	427(4.1)	404(4.0)
대졸 이상	277(3.7)	273(3.5)	253(3.3)	251(3.3)	241(3.1)	290(3.7)	282(3.5)	255(3.2)	275(3.4)
취업 무경험 실업자	60	41	32	26	34	60	41	43	27
취업 유경험 실업자	915	837	835	817	793	854	776	780	780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공식 실업통계의 기준이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전환.

취업 무경험 실업자=과거에 취업한 경험이 없었던 실업자(신규실업자)

취업 유경험 실업자=과거에 취업한 경험이 있었던 실업자(전직실업자)

자료: 통계청, 『2006년 8월 고용동향』, 2006. 9.